

전남도내 미사용 군용지 23곳 휴양소 만든다

도, 2020년까지 콘도형 편의시설 등 조성

31사단과 논의 ... 20년간 무상임대 방식

전남지역 내 미사용 군용지 23곳이 오는 2020년까지 휴양소로 조성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향토 사단인 육군 31사단 책임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23곳을 2020년까지 펜션형 숙박시설, 콘도형 편의시설 등을 지어 휴양소로 만든다.

휴양소 건립 예정 군용지는 내륙 6곳, 해안 17곳이다. 지역별로는 영광 4곳, 여수·해남·고흥 각 3곳, 진도·완도 각 2곳, 영암·목포·담양·무안·신안·장흥 각 1곳 등이다.

전남도는 대부분 현재 잡종지, 임야인 이들 군용지의 지목을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뒤 군용지 내 소초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휴양소로 조성된 군용지를 20년간 무상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31사단은 국방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31사단이 군용지에 민간건물 허가 신청을 하는 등 군용지를 휴양소로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와 협의를 마쳤다”며 “휴양지로 조성할 미사용 군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권혁신 31사단장은 지난 7월 미사용 군용지의 휴양소 조성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대부분 해변 등 경관이 뛰어난 군용지에 휴양소가 조성되면 벽오지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월호 특조위, 팽목항 희생자 분향소 헌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들이 1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임시 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밍 사기 올 5956건 ... 3년새 50배 늘어

장병완 의원 국감자료

지난해 피해액 256억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사기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6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110건에 불과했던 파밍 차단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5956건으로 3년간 5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2013년 약 164억원에서 작년에 256억원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피해액만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전자금융 사기 수법인 ‘피싱’의 차단 건수는 2010년 8건에서 올 7월 4842건으로 5년간 600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한해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16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정부 당국은 파밍 등의 악성 코드가 전파되면 신속한 백신 업데이트는 물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20개국 423개 기관·기업 참여 신청

당초 350곳서 크게 늘어

농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에 20개국 423개 기업·기관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0개국 350곳을 넘어선 것으로, 박람회조직위 측은 참가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1일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회 참가 기업 및 기관이 지난 2012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규모(420곳)를 넘어서 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람회조직위가 그동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각국의 주한외국대사관과 유관기관, 전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유치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활동을 펼치고, 박람회 해외기업 유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국내 기업 및 기관의 경우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 관계자 면담 등을 거치면서 KT,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329개 업체들이 참가를 결정했다. 박람회 측산관 등 일부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마감됐음에도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 후보 이병화·허성관 압축

4일 이사회서 1명 내정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 광주·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최종 후보에 이병화(67) 전 광주시정무부시장과 허성관(68)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정됐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12명 응모자 중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명을 압축, 이사회에 추천했다. 원장추천위는 광주·전남 시·도와 의회에서 각 2명씩 8명, 이사회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일부 위원들은 첫 공모 당시 선정된 위원들이 그대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공정성 등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원장추천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1명을 내정하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

회의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5명과 시·도 단체인 추천한 선임직 이사 14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사장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다.

앞서 이달 초 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 이 가운데 3명이 이사회에 추천됐으나 연구원 규정에 맞지 않아 후보자 추천이 무산됐다. 연구원은 19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5년 6월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2007년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고 지난해 7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양 시·도 상생발전의 제1호 의제로 통합을 추진해 광주·전남 연구원으로 재탄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명성황후에 비유’ 기사

정부 항의에도 日 산케이 삭제 거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을 게재한 일본 산케이 신문 측에 1일 항의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했으나 산케이 측은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날 산케이 신문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케이 측은 문제가 생긴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

을 들어 기사 삭제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의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 정치부 전문위원은 전날 산케이 인터넷 판에 ‘미중(美中)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고정 칼럼을 실었다. 칼럼은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이 ‘사대주의’ 행보라며 “이씨 조선(조선시대)에는 박 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고 박 대통령을 ‘민비’(일본에서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귀어·귀촌 118명에 140억 용자 지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도내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자 118명을 선정, 140억원을 용자 지원한다. 지난해 57명(92억원)에 비해 61명(4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진도군이 32명(2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안군 22명(19%), 완도군 21명(18%), 고흥군 16명(14%)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78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젊은 청장년층의

귀어·귀촌이 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처럼 귀어·귀촌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시 청장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전북 양식 등으로 어촌 소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어촌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리 2%, 5년 거주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998백만원 선착순(동·호 지정) 분양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양방출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 소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역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동·호 지정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별관·임대지구 중상생형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원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승,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디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길 70m 하남명도 6층

(02)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서신동